

● Gel형태의 구연산 제제가 잔류된 치태, 치석 및 치근표면에 미치는 영향

이철우 · 최상묵 · 심창구* · 한수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제약학과

치주조직의 치유과정을 개선시키기 위해 구연산에 의한 치근탈회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구연산은 비외과적인 치주치료시 치주낭내로 도포가 어려우며 외과적 치주치료시에도 주위조직과 불필요한 접촉등 사용상의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 구연산 사용에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친수성 젤 형태의 구연산 제제를 개발하였고 이를 비외과적인 방법에 응용하기 위해 시험관내 실험과 생체실험에서 치근활택술과 병행하여 사용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시험관내 실험과 생체실험에서 관찰된 치근표면은 전반적으로 구연산 처치군이 생리식염수 처치군이나 비구연산 젤 처치군에 비해 잔류된 치태와 치석등이 훨씬 적었으며 상아세관 및 교원섬유의 노출을 보였다.
2. 구연산 적용시간의 연장과 비례하여 잔류된 치석 및 치태의 더 많은 감소 또는 완전한 제거를 볼 수 있었다.
3. 시험관내 실험에서 구연산 수용액과 비교시 구연산 젤의 탈회효과는 다소 낮았으나 생체실험에서는 동등하거나 약간 우수함을 보였다.

● Chlorhexidine 및 Listerine 구강 양치제가 치태와 치은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형철 · 허 북

Chlorhexidine구강 양치제와 Listerine구강 양치제가 치태 축적 및 치은 염증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연구하고자, P대학교 치과 대학생 28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normalization. period후 2주간 칫솔질을 중단한 상태에서, CT군에서는 생리식염수로, CH군에서는 클로르헥사메드로 그리고 LT군에서는 리스테린으로 각각 1일 2회 구강 양치를 시키면서, 실험0주, 1주 그리고 2주째에 치태지수, 치은지수 및 치은열구 액의 양을 그리고 실험1주째에 치태내 세균의 분포 및 치태의 중량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실험 1주 및 2주 공히 CH군 및 LT군이 대조군보다 치태 축적 및 치은 염증의 정도가 저하되었다.
2. 치태지수는 CH군과 LT군이 실험 1주째에는 1.97, 2.53, 2주째는 2.16, 2.99로 두 군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1$, $P < 0.01$)
3. 실험 2주째의 치태의 중량은 CH군과 대조군이 각각 12.79mg, 24.83mg으로 두 군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5$)
4. 치은지수는 CH군과 LT군이 실험 1주째는 0.75, 0.77로 두 군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P > 0.02$), 2주째는 0.88, 1.66으로 두 군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 < 0.01$)

5. Periotron으로 측정 한 치은열구액의 양은 CH군과 LT군이 실험 1주째는 18.55, 27.94, 2주째는 22.80, 30.47로 두 군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1$, $P<0.01$)
6. 실험 2주째에 치태내의 운동성 간균, spirochetes, 운동성 filaments, 구균, 비 운동성 간균, 비 운동성 filaments의 비율은 CH군에서는 6.71%, 5.95, 1.04, 59.63, 21.77, 4.71,였고, LT군에서는 11.49, 10.03, 1.23, 45.29, 16.52, 11.43,로 운동성 간균, spirochetes, 비 운동성 간균, 구균, 비 운동성 filaments에서는 두 군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P<0.01$, $P<0.01$, ($P<0.01$, $P<0.05$, $P<0.02$), 운동성 filaments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2$)
7. 치아착색은 실험 전 기간 동안 CH군, LT군 공히 관찰되지 않았다.

● 외과적 치주치료중 치주질환으로 기인된 치아별 상실률에 관한 연구

임기종 · 한경윤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과괴성 치주질환으로 기인된 치아상실에 관한 자료를 얻는데 목적을 두고 시행한 본 연구는 1980년부터 1989년 까지의 10년동안에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치주과에서 상악과 하악 모두 외과적 치주치료를 시술받은 치주질환 환자 1,048명(남자 549명, 여자 499명)의 진료기록부와 초진시 촬영된 전악 방사선 사진 및 치료중 촬영된 방사선 사진을 연구자료로 이용하여 치아상실 원인을 치주원인과 기타 원인으로 분류한 후 과도한 지지조직 소실로 기인된 치아상실률을 구하고, 치아별, 성별 및 초진시 연령군에 따른 치아상실률의 차이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구치부에서 치주질환으로 기인된 치아상실률이 가장 높은 치아는 상악 제1대구치(4.85%)였으며, 가장 낮은 치아는 제1소구치는(0.98%)였다.
2. 전치부에서 치주질환으로 기인된 치아상실률이 가장 높은 치아는 하악 중절치(3.73%)였으며, 가장 낮은 치아는 하악 견치(0.29%)였다.
3. 치주질환으로 기인된 치아상실률은 연령증가와 함께 증가되었으며, 30대, 50대, 그리고 60대 연령군에서 유의성 있는 증가를 보였다($P<0.001$).
4. 치주질환으로 기인된 치아상실률이 30대와 60대에서는 남자보다 여자에서 더 높았고($P<0.001$).
5. 치주질환 환자의 경우 치주질환 자체가 상·하악 제3대구치를 제외한 모든 치아에서 치아상실의 주원인이었다.
6. 치주질환 환자에서 치아상실의 일반적인 양상은 양측성이 아니라 편측성이었다.